

1255~1256년 槽島·牙州海島 대상지 비정과 海戰의 影響

강재광*

1. 머리말
2. 1255년 槽島戰鬪 대상지와 海戰의 승첩
3. 1256년 牙州海島戰鬪 대상지와 海戰의 승첩
4. 1255~1256년 海島戰鬪 승첩과 군사적 영향
5. 맺음말

1. 머리말

高麗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대한 판도를 이룩했던 蒙古帝國과 29년에 걸친 장기간 전쟁을 치렀다. 군사적 측면에서 열세였지만 그러한 長期戰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高麗武人政權이 山城入保策과 더불어 海島入保策을 적절히 구사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산성입보책은 강성한 적군에 대해 淸野入保戰術과 守城戰으로 대항하였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백과사전편찬실 선임연구원

방어책이었으나, 해도입보책은 고려무인정권시대 이전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항전 전략이었다.¹⁾ 대몽전쟁이 장기화된 것은 산성입보책의 구사보다도 오히려 해도입보책 실행에 의한 전략·전술적 효과를 독특히 보았기 때문이었다.

해도입보책에 의거한 抗蒙戰略은 고종 18년(1231) 9월 黃州·鳳州의 鐵島 입보로 실험적으로 시행되었고,²⁾ 같은 해 10월 사이에 北界 興化道에 소속된 州·鎭이 동시다발적으로 북계 해도 및 紫燕島(현 영종도)에 입보함으로써 예비 단계를 갖추었다.³⁾ 이후 高宗 19년(1232) 6월 江華遷都를 계기로⁴⁾ 연해안에 위치한 州縣의 해도입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나갔다. 강화천도 이후 해도입보책은 고려의 항몽전략으로 확정되고 崔瑀政權의 抗蒙政策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해도입보책에 입각한 항몽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악조건의 극복이 필요하였다. 먼저, 大河水 하구에 놓여 있는 전략적 가치가 큰 섬들을 확보하고 유기적으로 서로를 연결시키는 해상교통망 장악이 필요하였다.⁵⁾ 다음으로, 그러한 섬들에 別抄軍(三別抄 포함)과 州縣의 관리 및 소수 선택된 백성들이 농사짓고 살만한 土地와 식수를 담을 貯水池가 보장되어야 했으며 일정한 방어시설 및 식량창고가 구축되어 있어야

1) 海島入保策에 의거한 高麗의 對蒙抗戰 및 海島入保 實態에 관한 논문으로는 다음의 연구가 크게 참고된다. 尹龍嫻, 「고려의 海島入保策과 몽고의 戰略變化-麗蒙戰爭 전개의 一樣相-」, 『歷史教育』 32, 1982; 姜在光, 「對蒙戰爭期 崔氏政權의 海島入保策과 戰略海島」, 『軍史』 66, 2008; 「對蒙戰爭期 서·남해안 州縣民의 海島入保抗戰과 海上交通路」, 『지역과 역사』 30, 2012; 윤경진, 「고려후기 北界 州鎭의 海島入保와 出陸 僑寓」, 『震檀學報』 109, 2010; 「고려 대몽항쟁기 南道지역의 海島入保와 界首官」, 『軍史』 89, 2013; 姜鳳龍, 「몽골의 침략과 고려 무인정권 및 삼별초의 「島嶼海洋戰略」-그 동아시아적 의의-」, 『東洋史學研究』 115, 2011.

2) 『高麗史』 卷23, 高宗 18년 9월 丁酉日條, “丁酉 蒙兵至黃鳳州 二州守 率民 入保鐵島.”

3) 『高麗史』 卷58, 志12, 地理3 宣州·昌州·隨州·雲州·博州·嘉州·郭州·撫州·秦州·殷州 참조. 이들 州중에서 宣州·昌州가 紫燕島(현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입보하였다. 나머지 北界 州들은 入保處가 확인되지 않으나 北界의 중요한 여러 海島에 입보했으리라 짐작된다.

4) 『高麗史節要』 卷16, 高宗 19년 6월조의 江華遷都 부분을 참조.

5) 姜在光, 앞의 논문, 『지역과 역사』 30, 2012.

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對蒙戰鬪를 수행한 섬들을 소위 戰略海島라고⁶⁾ 할 수 있는데, 『高麗史』 등 사서에서는 對蒙戰爭期에 대략 20여개가 넘는 전략해도들이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散見된다.⁷⁾

江都 정부에서는 전략해도에 別抄軍과 水軍을 파견하여 섬을 死守했으며 몽고군의 침공 시 연해안 주현민을 우선적으로 해도에 입보시켰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몽고군이 내륙 要害處까지 침공하면서 대몽전쟁 후반부에는 내륙에서도 界首官 단위의 해도입보가 이루어졌다.⁸⁾ 그 대표적인 예가 충청도 淸州의 해도입보였다.⁹⁾ 이에 앞서 대몽전쟁 전반부에 계수관 廣州·南京의 江都로의 해도입보가 추진되기도 하였다.¹⁰⁾ 그러나 몽고군이 중부 내륙 지방의 山城까지 함락시키고 집요하게 공략한다고 해서 내륙 요지에 위치한 주현별초군과 주현민을 해도에

-
- 6) 戰略海島에 대해서는 姜在光, 앞의 논문, 2008을 참조. 강재광은 對蒙戰爭期 『高麗史』·『高麗史節要』 등에서 散見되는 海島들에 別抄軍이 상주해 있고 海上에서 對蒙戰鬪가 벌어졌거나 몽고군이 해상 침투를 시도했다면 그곳은 마땅히 戰略海島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전략해도는 北界 興化道에 인접한 몇몇 섬들이 對蒙戰爭 초기부터 설정되었고, 江華遷都 이후 국가에 의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섬들이 전략해도로서 확대, 지정되었다.
- 7) 對蒙戰爭期 海島入保處를 제시하면 鐵島·薪島·紫燕島·江華島·席島·蔚陵島·莞島·葦島·葛島·槽島·仙藏島·大府島·押海島·艾島·昌麟島·神威島·猪島·竹島·松島·德積島 등 20여개 섬이 발견된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사료에 등장하지 않는 해도입보처를 고려하면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도 좋다. 극히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20여 개가 넘는 해도를 戰略海島라고 보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 8) 윤경진, 앞의 논문, 2013. 윤경진은 對蒙戰爭 후반부 南道 지역에 있어서 界首官 단위의 海島入保가 일반화되었다고 지적하고, 淸州·忠州·全州·晉州 등지의 界首官이 각기 국가가 지정한 섬으로 입보하였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對蒙戰爭 후반부 界首官 단위의 海島入保 현상은 수공이 가는 측면이 있다. 청주나 경상도 내륙이 해도에 입보하기 때문이다. 淸州의 海島入保는 사료 상에서 확인되므로 역사적 사실로 인정된다. 그렇지만 忠州·全州·晉州의 해도입보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실제로 특성 섬에 입보했는지 여부를 판명하는 작업도 그리 간단치 않다.
- 9) 『高麗史』 卷24, 高宗 43년 秋8月 庚辰日條, “庚辰 遣 將軍宋吉儒 徙淸州民 于海島.” 이와 아울러 宋吉儒는 慶尚道民을 海島에 入保시켰음이 『高麗史』 酷吏 宋吉儒傳에서 확인되는데, 낙동강에 인접한 界首官이나 郡縣이 海島入保 대상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10) 『高麗史』 卷23, 高宗 22年 秋閏7月 壬午日條, “壬午 命前後左右軍陣主 知兵馬事 沿江防戍 又 令廣州南京 合入江華.”

입보시킬 수는 없었다. 중부 내륙 요해처는 강도 정부가 산성입보책을 근간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고려의 중요 방어선이었으며, 고려의 주요 전략해도만큼이나 중요했다. 그러한 대표적인 곳이 春州·忠州·尙州 등이었다. 비록 春州城은 也古軍에게 함락되었지만 충주·상주 등지를 고수함으로써 몽고군의 남진을 저지하고 연해안·대하천에 인접한 내륙 주현의 해도입보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몽고 제5차 침입(1254~1259)¹¹⁾ 당시 몽고군 元帥府는 그간의 對高麗戰爭 전략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과감하게 해도침공을 단행하였다. 몽고군의 해도침공은 서해안 전략해도들을 각개 격파하여 江都和 전략해도 사이의 해상교통로를 차단시키고 漕運路를 봉쇄함으로써 고려 정부의 經濟難을 가중시켜 항복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전략개념 하에서 몽고군의 해도침공이 1255~1256년 사이 진행됨으로써 고려는 그간 경험치 못한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전략해도 방어 및 사수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만 했다.

그동안 고려시대 사학계에서 몽고군의 해도침공과 고려 측의 대응에 관련된 논문이 발표되어 이 분야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尹龍赫은 몽고군의 해도침공 배경과 고려 측의 주요 海戰 경과를 개괄하면서 江都 정부의 해도입보 운영 방식과 그 한계를 살폈다.¹²⁾ 姜在光은 대몽전쟁기 서·남해안 및 동해안에 위치한 전략해도의 위치와 전략적인 가치를 설명하고 전략해도에서 벌어진 주요 해전 결과와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¹³⁾ 姜鳳龍은 고려의 해도입보책을 ‘島嶼海洋戰略’이라 명명하고 대몽전쟁기 도서해양전략이 三別抄抗爭까지 연계되는 측면을

11) 필자는 蒙古軍 元帥별로 전쟁 시기를 구분하여 몽고의 제1차 침공(1231)과 제2차 침공(1232)을 撒禮塔의 제1-(1)·(2)차 침입으로 정리한 바 있다(姜在光, 『蒙古侵入에 대한 崔氏政權의 外交的 對應』, 경인문화사, 2011, 55~56쪽).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기존 통설에서 말하는 몽고 제6차 침입(1254~1259)은 필자가 제시한 제5차 침입에 대응하게 된다. 이 글에서 다루는 몽고 제5-(2)차 침입은 1255~1256년에 해당한다.

12) 尹龍赫, 앞의 논문, 1982.

13) 姜在光, 앞의 논문, 2008.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¹⁴⁾

한편 윤경진은 대몽전쟁기 전쟁 후반부로 갈수록 南道 지방에 있어서 界首官 단위의 해도입보가 이뤄지는 측면을 포착하여 중부 내륙 및 남부 지방까지도 계수관이 해도에 입보했다고 주장하였다.¹⁵⁾ 특히 忠州의 大府島 입보, 全州의 智島(槽島로 추정)·押海島 입보를 추론한 것은 기존 연구에서 보이지 않는 참신한 新說이면서도 논쟁이 되는 부분이다.

이글에서 필자는 1255~1256년 몽고군의 해도침공 당시 논란이 되고 있는 槽島와 牙州海島의 위치를 비정하고 이 섬들의 전략적 가치와 海戰의 결과를 기존 연구와는 다른 시각으로 고찰하려 한다. 1255년 말엽에 槽島戰鬪가 벌어졌고, 1256년 4월에 牙州海島戰鬪가 발발했음을 통해서 몽고군 선봉대의 위치와 몽고군 원수 車羅大가 이끄는 몽고군 本隊의 위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다면 槽島와 牙州海島를 비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조도전투는 몽고 제5차 침입 당시 최초의 해전이었던 데 의미가 있고, 아주해도전투는 押海島海戰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해전으로서 해도전투의 분수령을 이루었다는 데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그간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고 많은 의문점을 배태시켰던 조도전투와 아주해도전투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대몽전쟁기 海島入保策에 의거한 대몽전략의 일단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일조했으면 한다.

14) 姜鳳龍, 앞의 논문, 2011.

15) 윤경진, 앞의 논문, 2013.

2. 1255년 槽島戰鬪 대상지와 海戰의 승첩

몽고 제5-(2)차 침입(1255~1256) 때 몽고군 원수 車羅大는 고려의 戰略海島들을 모두 점령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海島侵攻을 단행하였다. 이미 몽고군 원수부는 제5차 침입 시초부터 그간의 전략에 변화를 주어 고려의 전략해도에 대한 침공 및 점령을 의도했다고 보아진다. 몽고군의 대대적인 해도침공의 시초가 되는 것이 1255년 12월의 槽島 침공이었다. 물론 조도 침공에 앞서 몽고 제4차 침입(1253) 말엽에 철수하던 也古軍이 北界의 葛島를 侵寇했던 적이 있었으나¹⁶⁾ 이것은 해도침공의 효시가 되는 것일 뿐 본격적인 해도침공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槽島戰鬪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극히 짤막한 기록이 전한다.

A. 壬辰 蒙兵造船 攻槽島 不克(『高麗史』卷24, 高宗 42년 12월 壬辰日條)

1255년(고종 42) 12월 30일(壬辰日)에 몽고병이 배를 만들어 조도를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몽고병이 조도전투를 치른 시점은 壬辰日, 곧 12월 30일이었지만 그들이 戰船을 건조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이른 시점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사료 A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은 조도전투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좋다. 몽고군이 조도를 공격하기 위해 전선을 건조한 시점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1255년 11월~12월 초순경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선을 건조하는 작업에 스스로 투항한 고려인과 사로잡힌 고려 기술자들이 투입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조도전투의 구체적 전개상황을 알 수 없지만, 사료 A의 대강을 통해서 격렬한 전투 끝에 조도에 주재한 고려 別抄軍이 入保民과 더불어 몽고 水軍을 격퇴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16) 『高麗史』卷24, 高宗 41년 2월 己未日條, “己未 北界兵馬使報 蒙古兵船 七艘 侵葛島 虜三十戶.”

그러면 조도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궁금해진다. 기존 연구에서 조도를 전라도 서해안 섬으로 보거나¹⁷⁾ 혹은 전라남도 智島¹⁸⁾라고 비정하였다. 이러한 위치 비정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몽고군 선봉대 혹은 몽고군 본진의 남하시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 B-1. 甲午 京城解嚴(『高麗史』卷24, 高宗 42년 2월 甲午日條)
- B-2. 辛卯 北界兵馬使報 蒙兵 屯義靜州之境 自兄弟山 至大府城 彌滿原野 (『高麗史』卷24, 高宗 42년 夏4月 辛卯日條)
- B-3. 丁未 北界報 蒙兵 三百餘騎 寇龍岡咸從等縣 掠農民牛馬而去(『高麗史』卷24, 高宗 42년 5월 丁未日條)
- B-4. 戊子 蒙兵 二十餘騎 到昇天府 京城戒嚴(『高麗史』卷24, 高宗 42년 8월 戊子日條)
- B-5. 丁未 崔璘與蒙古使 六人來 留客使于昇天館 先入奏云 車羅大 永寧公 領大兵 到西京 候騎 已至金郊(『高麗史』卷24, 高宗 42년 9월 丁未日條)
- B-6. 冬十月 乙丑 蒙兵 踰大院嶺 忠州 出精銳 擊殺千餘人(『高麗史』卷24, 高宗 42년 冬10月 乙丑日條)

위의 사료 B群은 고종 42년(1255) 몽고 제5-(2)차 침입 개시부터 槽島戰鬪 이전까지의 전쟁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사료들을 통해 몽고군 선봉대의 위치와 車羅大軍 본진의 위치를 기늬할 수 있다. 사료 B-1은 京城(江都)에 계엄이 해제된 것을 통해서 1255년 2월에 몽고 제5-(1)차 침입이 종료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사료 B-2를 보면, 불과 2개월 후에 몽고군이 제5-(2)차 침입을 재개하였음을 통찰할 수 있다. 1255년 5월 몽고군 선봉대 300여 기병은 龍岡縣·咸從縣

17) 尹龍燾은 車羅大軍이 침공한 槽島를 전라도 서해안의 어느 섬으로 추정하였다. 尹龍燾, 앞의 논문, 1982, 71쪽 및 76쪽. 그러나 車羅大軍 本營이 1255년에 이미 전라도 서해안에 도착해서 戰船을 건조하여 槽島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18) 윤경진, 앞의 논문, 2013. 윤경진은 全州人들이 전라도 智島·押海島에 入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智島가 곧 槽島였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界首官 전주가 智島에 입보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智島가 곧 槽島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智島는 현재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에 속하는 섬이다.

등을 노략질하였으며(B-3), 같은 해 8월 선봉대 20여 기병이 昇天府에 도달하자 江都 정부는 京城에 계엄을 내렸다(B-4).

사료 B-5에서 고려 사신 崔璘의 귀국 보고를 통해서 車羅大·永寧公(王縉)이 大兵을 거느리고 西京에 당도하였으며 척후기가 金郊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때는 1255년 9월에 해당하는데, 차라대의 본진이 西京 부근에 있었던 것이다. 한편, 사료 B-6을 보면, 몽고군이 大院嶺을 넘자 忠州에서 精銳兵(別抄)을 출격시켜 1천여 명을 擊殺했음을 포착할 수 있다. 사료 B-6에서 등장하는 몽고군은 차라대의 본진이 아니라 몽고군 別動隊(선발대)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되어 있으므로¹⁹⁾ 필자도 이에 따른다. 이 별동대는 대원령을 넘어 忠州-尙州 방면의 여러 산성을 공략하는 한편 경상도 지역의 해도입보를 방해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고려사』·『고려사절요』 등에서는 사료 B-6 기사 이후부터 사료 A의 조도전투 이전까지 차라대 본진의 남하에 대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대원령을 넘어간 몽고군 별동대 이외에 별도의 대규모 선봉대가 한강이나 금강을 도하해서 전라도 방면에 도달했다는 기록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1255년 10월~12월경 몽고군 선봉대나 차라대의 본영이 전라도 방면까지 남하해서 戰船을 건조한 후 조도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적어도 관련사료에서 그러한 기록이 全無하기 때문이다. 차라대의 진격 명령을 받은 별동대가 전라도 방면으로 남하했다면 반드시 관련사료에서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야 하는데 전혀 찾아지지 않는 까닭이다.²⁰⁾ 그리고 차라대군의

19) 尹龍燾,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1991, 114~115쪽. 윤용혁은 車羅大軍의 別動隊(선발대)가 大院嶺 방면으로 진격했으며 忠州別抄에 의해 격살된 인원만 1천여 명인 것을 통해서 그 병력 규모가 작지 않았다고 추정하였다. 필자는 1255년 10월경 몽고군은 차라대의 본진이 西海島 방면에, 다수 병력으로 구성된 별동대가 忠州 방면에 위치했다고 보며, 대규모 부대가 전라도 방면에는 남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20) 『高麗史』·『高麗史節要』에서 1255년 10월부터 12월 사이의 기록에는 車羅大軍의 先鋒隊나 本陣이 전라도 서해안까지 진출했다는 기사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본영은 1256년 3월 戊午日까지도 강화도 狹梁 이남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²¹⁾ 1255년 12월 말엽의 조도전투 대상지가 전라남도 智島였다는 견해도²²⁾ 수긍하기 어렵다. 이 견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몽고군 선봉대가 1255년 10월경 전라남도 서해안에 도달해서 戰船을 건조하기 시작했다는 사료상의 근거를 확보해야 하며, 다음으로 ‘槽島=智島’라는 점을 납득시킬만한 여러 증거들을 제시해야 한다. 단지 界首官 全州의 海島入保處로서 전라남도 智島가 적합하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지도=조도’라고 설명하는 것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사료 B群에서 보이는 車羅大軍 본진의 남하과정을 분석해볼 때, 차라대가 西京으로부터 西海道 방면으로 내려와 일정 기간 머무르며 조도전투를 준비했다고 생각된다. 사료 B-3에서 몽고군 기병대가 1255년 5월에 용강현·함종현 등지를 노략질하고 이어 B-4에서는 8월에 20여 騎가 승천부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면, 차라대의 본진도 같은 해 9월 이후 서경에서 西海道 방면으로 내려왔을 것이 자명하다. 차라대는 서해도에서 몽고군 전체 부대를 재정비하고 일단의 별동대를 충주 방면으로 급파함과 아울러 일부 부대를 통해 전선을 건조한 후 대담하게도 조도를 침공한 것으로 이해된다.

車羅大軍이 서해도로 진군했다면 조도의 위치는 北界의 戰略海島에서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서해도 방면에서 조도를 비정해야 하는데, 관련사서에서 조도의 위치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서해도에는 鐵島·席島·椒島·昌麟島 등 관련사서에서 등장하는 전략해도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대몽전쟁기 기록에서 등장하지

車羅大軍의 선봉대가 전라도 서해안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마저도 극히 의심스럽다. 車羅大는 대규모의 몽고군 別動隊를 1255년 10월에 忠州 방면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21) 『高麗史』 卷24, 高宗 43年 3月 戊午日條, “戊午 蒙兵 到狹梁外 崔沆 使都房 分守要害.” 1256년 3월 車羅大軍 本營은 강화도 狹梁 부근에 머물러 있었지만 차라대군에서 차출된 소규모 선봉대는 1256년 1~2월경 충청도, 전라도 방면으로 남하하였다고 판단된다.

22) 윤경진, 앞의 논문, 2013.

않는 중요한 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席島와 椒島가 대표적인 전략해도였다. 석도는 서해도 豊州 관할이며²³⁾, 席島防護別監이 배치되어 있었다. 1236년(고종 23) 8월 21일에 席島防護別監이 몽고병 3인을 사로잡아 江都로 압송해왔던 적이 있었는데²⁴⁾, 그 당시 唐古가 이끄는 몽고군의 한 부대가 석도침공을 시도하다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⁵⁾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었던 석도를 1255년 12월경 차라대군이 다시 침공했을 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석도=조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해도에서 전략적인 가치가 가장 큰 섬이 椒島이다. 초도는 고려시대 당시 서해도 豊州 관할로²⁶⁾, 섬 안에 목마장을 지니고 있으며²⁷⁾, 농경지도 있어 경제적 여건을 구비하였다. 이 섬은 지리적으로도 북계 전략해도와 서해도 전략해도들을 서로 이어주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고려시대 北線航路의 중점으로써 고려 사신들과 상인들은 초도를 통해 중국 登州로 향하였다.²⁸⁾ 한편, 1259년(원종 즉위년) 7월 北界別抄都領郎將 李陽著가 휘하 別抄 군사를 거느리고 초도로 옮기려다 부하들의 반란으로 실패한 바 있고,²⁹⁾ 1270년 1월에 무인집정 林衍이 장차 몽고군의 再侵과 원종의 出陸還都 명령에 대항하기 위해 초도에 神義軍을 배치한 적이 있었다.³⁰⁾ 이러한 모든 사항들은 초도가 서해도에서 차지하는 전략적인 비중을 가늠케 해준다. 실제로 현재 초도에는 북한

23) 『高麗史』地理志 豊州 참조.

24) 『高麗史』卷23, 高宗 23년 8월 丙午日條, “丙午 席島防護別監 擒蒙兵三人 檻送于京.”

25) 姜在光, 앞의 논문, 2008, 41쪽.

26) 『高麗史』地理志 豊州 참조.

27) 『新增東國輿地勝覽』卷43, 豊川都護府 山川條, “椒島 府北四十里 海中 有牧場.”

28) 한국사사전편찬회 저, 「고려의 대외무역」, 『한국고중세사사전』, 가람기획, 2006, 656쪽.

29) 『高麗史』卷25, 元宗 卽位年 秋7月條, “北界別抄 都領郎將 李陽著 率兵 將移于椒島 麾下給曰 請下陸而畋 遂殺陽著及京兵 浮海而逃蔚珍 縣令朴淳 船載妻孥臧獲并家財 將適蔚陵 城中人知之 會 淳入城 被拘留 舟人以其所載 遁去.”

30) 『高麗史節要』卷18, 元宗 11年 春正月條, “衍 慮王請兵復都 欲拒命 遣指諭智甫大 率兵 屯黃州 又令神義軍 屯椒島 以備之.”

해군의 제9전대가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군과 연평해전을 겪은 바 있다.

서해도의 초도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더라도 ‘조도=초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료 A에서는 분명히 ‘槽島’라고 명시하고 있고, 조도전투 이후 對蒙戰爭期를 경과한 시점의 『고려사』 기록에서 비로소 ‘椒島’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難點이 있지만, 필자는 사료 A의 조도전투 대상지가 초도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본다. 차라대군 본진의 이동과 선봉대 斥候騎의 남하 과정을 일자 별로 살펴보면 한편으로 초도의 전략적인 가치를 염두에 둘 때 그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만일 차라대군이 해도침공을 실행하다가 실패한 대상지가 초도가 아니라면 조도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西海島에 위치한 다른 섬이 될 여지도 있다.³¹⁾ 그렇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차라대군이 침공한 조도가 곧 초도였을 개연성이 높으며, 적어도 1255년 12월 몽고군이 침공한 조도는 전라남도 서해안에 위치한 섬이 아니라는 점만큼은 분명해졌으리라고 믿는다.

3. 1256년 牙州海島戰鬪 대상지와 海戰의 승첩

몽고 제5-(2)차 침입에 있어서 槽島戰鬪와 더불어 牙州海島戰鬪는 의문점이 많은 難題로 남아 있다. 구체적으로 牙州海島의 위치 비정 문제와 아울러 아주해도전투가 고려 측 입장에서 승전인지 아니면 패전인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아주해도전투의 전개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31) 만일 槽島=椒島가 아니라면 槽島는 西海島 웅진반도에 가까운 섬이거나 혹은 강화도 바로 북쪽에 위치한 섬이었을 가능성만큼은 열어 놓아야 한다고 본다.

C. 庚寅 忠州道巡問使 韓就 在牙州海島 以船九艘 欲擊蒙兵 蒙兵逆擊 盡殺之
(『高麗史』 卷24, 高宗 43年 夏4月 庚寅日條)

사료 C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忠州道巡問使 韓就가 牙州海島에 있다가 배 9척으로 몽고병을 치고자 하였으나 몽고병이 逆擊하여 그들을 모두 죽였다”로 번역하고 있다.³²⁾ 한문의 문맥으로만 따진다면 이러한 해석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와 달리 “충주도순문사 한취가 아주해도에 있다가 배 9척으로 몽고병을 치고자 하였는데, 몽고병이 역격해 오므로 (한취 휘하 고려군이) 그들을 모두 다 죽였다”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윤용혁에 의해 시도되었는데,³³⁾ 사료 C의 한문 문맥보다는 그 당시 해도전투의 경과 및 한취의 이후 官歷을 중시한 데 따른 결과였다.

필자는 사료 C의 해석에 있어서 전자(문맥대로의 해석)가 문맥상 자연스럽더라도 전자보다 후자(윤용혁 해석)의 견해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몽고 수군이 逆擊하여 한취 휘하의 전선 9척에 탑승한 고려 수군(혹은 별초군)을 모두 격멸하였다면 아주해도전투는 패전이 분명하며, 이 전투에서 한취도 戰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한취가 전투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 전사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³⁴⁾ 그는 崔沆政權으로부터 문책을 받아 파직당하거나 重罰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주해도전투 직후 『고려사』에서 이 전투를

32) 尹龍燾, 앞의 논문, 1982, 79쪽의 사료 P-(1) 참조; 윤경진, 앞의 논문, 2013, 46쪽. 최근 윤경진은 韓就의 牙州海島 전투는 실패했으며 蒙古軍의 승리라고 해석하였다.

33) 尹龍燾, 「대몽항쟁기 지방민의 피란 입보 사례-아산만 연안 지역의 경우-」,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77쪽. 윤용혁은 종전의 해석을 바꿔 韓就가 牙州海島전투에서 승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34) 윤경진은 사료 C에서 ‘以船九艘’에 주목하여 ‘率船九艘’라고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 忠州道巡問使 韓就가 戰船 9척을 직접 통솔하여 蒙古兵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9척의 전선을 보낸 것일 뿐이라고 해석하였다(윤경진, 앞의 논문, 2013, 46쪽 각주 40).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라면 氏의 견해가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사료 C에서 ‘蒙兵逆擊 盡殺之’라고 되어 있으므로 蒙古兵을 모두 擊殺한 주체는 韓就와 전선 9척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패전으로 기록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으며³⁵⁾, 이 전투 이후 元宗代에도 한취가 大司成으로서 賀正使가 되어 몽고에 파견된 기사가 보인다.³⁶⁾ 이러한 점들은 사료 C의 해석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주해도전투가 고려 측의 승전임을 방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아주해도전투를 지휘했던 충주도순문사 한취는 아주해도에 주재하고 있었다. 충주도순문사 한취는 1253년(고종 40)에 三道巡問使의 일원으로 이미 파견되었거나³⁷⁾ 忠淸州道의 해도입보를 위해 1256년(고종 43) 1~3월 사이에 파견되었을 개연성이 높다.³⁸⁾ 그러므로 충주도순문사는 界首官 충주에 파견된 순문사가 아니라 忠淸州道巡問使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며³⁹⁾, 충청도의 해도입보 실행과 해도방어 임무를 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충청도 지역의 해도입보 및 해도사수 임무를 맡고 있었던 한취가 머물렀던 아주해도는 어느 섬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仙甘島(仙甘彌島),⁴⁰⁾ 仙藏島,⁴¹⁾ 大府島(大部島)⁴²⁾ 등 다양한 견해가

35) 만일 牙州海島戰鬪가 고려 측의 敗戰이라면 忠州道巡問使 韓就 휘하의 戰船 9척의 패물뿐만 아니라 蒙古兵이 牙州海島를 공략했다는 기사가 등장해야 한다. 그리고 최씨정권이 패전의 책임을 물어 한취의 관직을 삭탈하거나 보직을 해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기사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점은 아주해도전투가 고려 측의 승리라는 것을 반증해준다.

36) 『高麗史』卷25, 元宗 4年 冬10月 壬戌日條, “冬十月 壬戌 遣 大司成 韓就 如蒙古 賀正 兼謝賜羊.”

37) 『高麗史』卷24, 高宗 40年 秋7月 甲申日條, “甲申 北界兵馬使報 蒙兵 渡鴨綠江 卽移牒 五道按察 及三道巡問使 督領居民 入保山城海島.” 忠州道巡問使 韓就是 1253년(고종 40) 가을에 三道巡問使(慶尙州道·全羅州道·忠淸州道)의 일원으로서 忠淸道에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8) 1256년 1월 江都朝廷에서 將軍 李廣과 宋君斐로 하여금 水軍을 거느리고 南道 지방으로 내려가 장차 蒙古軍의 海島侵攻을 방어하게 한 장면을 통해서 忠州道巡問使 韓就가 1256년 1월 이후에 忠淸道 방면의 海島入保를 위해 파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39) 尹龍燾, 앞의 책, 2000, 87쪽.

40) 尹龍燾,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1991, 115쪽.

41) 尹龍燾, 앞의 논문,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85쪽. 尹龍燾은 『한국지명총람』 4(충남편 하, 1974)에 등장하는 新宮里의 口傳說話를 근거로 해서 韓就가 머물렀던 牙州海島를 현 아산시 仙掌面 宮坪里 新宮마을(오가물)로 추정

제시되어 있다. 아주해도를 仙甘島 혹은 仙藏島로 파악하는 견해는 天安府民이 1256년 1~3월 사이에 남하하는 몽고병을 피해 仙藏島에 입보했다는 『고려사』 지리지 ‘天安府’조의 기록을⁴³⁾ 바탕으로 하여 추정한 것이다. 특히 아주해도=선감도로 보는 견해는 선감도가 선장도와 발음이 유사하며 한자가 비슷한 데서 착상해낸 것이다. 그리고 아주해도를 대부도로 파악하는 견해는 아주해도전투 직전 대부도에 주둔한 대부도별초가 蘇來山 아래에 머물던 몽고병을 기습하여 그들을 물리친 기사를⁴⁴⁾ 주목해서 ‘아주해도=대부도’로 여기고 있다.

먼저, 한취가 駐在했던 아주해도를 仙甘島로 파악하는 주장의 난점을 살펴보자. 선감도는 고려시대 楊廣道 仁州 唐城郡에 속한 섬이었고 仙甘彌島로도 불렸으며,⁴⁵⁾ 현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속해 있다.⁴⁶⁾ 선감도 바로 위쪽에는 大府島가 위치하는데, 대부도가 선감도보다 규모가 크며 전략적으로도 더 중요했다. 현재는 시화방조제 건설로 선감도가 대부도와 연결되어 육지화 되었다. 선감도는 대몽전쟁기 천안부민이 입보했다는 仙藏島로 한때 추정되기도 했지만,⁴⁷⁾ 필자는 唐城郡이나 그 인근 郡縣이 선감도에 입보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본다. 당성군이 천안부보다 지리적으로 선감도에 가깝고 고려시대 행정구역 측면에서도 당성군에 선감도가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한취가 선감도에 머물면서 해도전투를 지휘했다면 선감도에 바로 인접한 대부도(대부도

하고 있다. 新宮마을 일대가 고려시대 당시에는 連陸島였을 개연성은 있다.

42) 윤경진, 앞의 논문, 2013, 51~53쪽. 윤경진은 忠州道巡問使 韓就가 忠州民을 거느리고 牙州海島, 곧 大府島에 入保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氏는 牙州海島를 아산만 일대에서 비교적 북쪽에 위치한 큰 섬인 大府島에 비정했는데, 大府島別抄의 활동을 참작해서 牙州海島=大府島로 상정한 것이다.

43) 『高麗史』 卷36, 地理志1, 楊廣道 天安府조 참조.

44) 『高麗史』 卷24, 高宗 43年 夏4月 庚辰日條, “庚辰 大府島別抄 夜出 仁州境蘇來山下 擊走蒙兵百餘人.”

45) 『高麗史』 卷36, 地理志1, 楊廣道 仁州 唐城郡조에서는 仙甘島가 ‘仙甘彌島’로 등장한다.

46) 姜在光, 앞의 논문, 2008, 56쪽의 <표 3> 참조.

47) 尹龍燾, 앞의 책, 1991, 115쪽.

별초)와의 연계작전이 『고려사』 등의 사료상에 등장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도별초의 작전과 충주도순문사 한취의 작전 일자가 서로 달랐으며, 한취가 대부도별초의 작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가 머물렀던 섬이 선감도가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취가 머물렀던 아주해도를 仙藏島로 파악하는 주장의 난점을 지적해보기로 한다. 『고려사』 지리지 ‘天安府’조의 기록을 보면, 天安府民이 仙藏島에 입보했다고 되어 있다. 1256년 3월 車羅大軍의 본진이 窄梁 바깥에서 무력시위를 했고, 48) 4월에 전라도 海陽縣에 도착한 49) 것을 통해서, 차라대군 본진은 1개월 만에 전라도까지 남하했지만 1256년 3월 이전에 충청도·전라도 방면으로 내려오지 못했다. 50) 그러므로 천안부민이 선장도에 입보한 시점은 1256년 1~3월 사이로 여겨진다. 그런데 천안부민이 입보했다는 선장도는 現存하지 않으므로 위치 비정이 어렵다. 다만, 口傳說話를 통해 “아산시 仙掌面 宮坪里 新宮마을(오가물)” 일대가 과거의 선장도였다는 견해가 있어 51) 주목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한취가 주재했던 아주해도를 천안부민이 입보했던 선장도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천안부민이 몽고병을 피해 선장도에 입보했고 선장도가 고려시대 당시 일개 섬으로서 牙州 권역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다고

48) 『高麗史』 卷24, 高宗 43年 3月 戊午日條, “戊午 蒙兵 到窄梁外 崔沆 使都房 分守要害.”

49) 『高麗史』 卷24, 高宗 43年 夏4月 壬申日條, “時 車羅大 永寧公 屯潭陽 洪福源 屯海陽.”

50) 車羅大軍 本陣이 1256년 3월 이전에 忠淸道·全羅道 방면으로 내려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車羅大가 보낸 소수의 선봉대가 1256년 3월 이전에 충청도·전라도 방면으로 남하했을 가능성은 있다. 몽고 제5-(2)차 침입군의 別動隊가 이미 1255년 10월에 慶尙道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여 忠州別抄와 大院嶺戰鬪를 치렀던 장면과 이듬해인 1256년 1월 25일에 장군 宋君婁와 李廣이 水軍 3백을 거느리고 장차 몽고군의 海島侵攻을 막기 위해 全羅道 방면으로 남하했던 장면에서 이러한 추정은 가능하다.

51) 尹龍麟, 앞의 책, 2000, 85쪽.

해서 한취가 그 선장도에 주재했다는 확실한 기록이 없다. 천안부민이 입보하였던 선장도와 한취가 주재하였던 아주해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앞의 사료 C에서 충주도순문사 한취는 아주해도에 머무르면서 몽고병을 치려하였고, 逆擊해오는 몽고병을 전선 9척으로 擊滅하였다. 사료 C의 해석대로라면 한취는 아주해도를 매개로 하여 몽고병과 海戰을 치렀던 것이 된다. 그리고 아주해도전투를 치렀던 몽고병은 牙州 해안에서 배를 건조하여 한취 휘하의 전선 9척과 海上戰을 벌였으나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 ‘아주해도=아주 권역의 해도’로 상정하면, 한취가 머물렀던 아주해도를 선장도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한취가 애초부터 선장도에 입보하고 있었다면 그는 해전보다는 기습상륙전을 의도했다고 보아야 한다. 아산시 선장면 궁평리 신궁마을(오가물) 일대로 비정되는 선장도는 連陸島였기 때문에 선장도와 牙州 사이의 극히 협소한 바닷길 사이에서 일정 규모의 해전이 벌어졌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은 ‘아주해도=선장도’라는 주장의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취가 머물면서 작전을 전개했던 아주해도가 바로 大府島였다는 주장의 난점을 짚어보도록 한다. 대부도는 앞서 살펴본 선감도 바로 위에 있는 섬인데, 그 위치나 입지 면에서 군사전략적 가치가 컸으므로 別抄軍이 배치되어 있었다. 대부도는 고려시대 楊廣道 仁州 唐城郡에 속했으며,⁵²⁾ 지금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편제되어 있다.⁵³⁾ ‘아주해도=대부도’說은 충주도순문사 한취가 忠州民을 이끌고 전략해도였던 대부도에 입보하였다는 것을 주요 논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고려시대 대부도가 仁州 唐城郡에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대부도에는 唐城郡民이나 그 인근 郡縣이 입보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충주도순문사는 충주에 파견된 순문사가

52) 『高麗史』卷36, 地理志1, 楊廣道 仁州 唐城郡조 참조.

53) 姜在光, 앞의 논문, 2008, 56쪽의 <표 3> 참조.

아니라 忠淸州道에 분견된 순문사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충주도순문사가 충주민을 거느리고 대부도에 입보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더구나 1255년 10월경 당시 충주 권역에서 몽고군 別動隊와 忠州別抄軍·山城入保民 사이에서 血戰이 벌어졌던 점을 상기한다면, 충주도순문사 한취가 충주민을 대부도에 입보시켰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또한, 대부도별초가 1256년 4월 庚辰日에 仁州 蘇來山 아래로 출격하여 몽고병 100여명을 격퇴시켰던 시점이 한취가 아주해도전투를 치르기 바로 직전이었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대부도와 아주해도는 서로 다른 섬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만일 ‘아주해도=대부도’설이 옳다면 1256년 4월 庚辰日에 있었던 대부도별초의 소래산 출격전은 대부도에 있던 충주도순문사 한취가 명령했다고 보아야 한다. 더불어 대부도에 입보한 충주민도 대부도별초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⁵⁴⁾ 그러나 한취가 대부도에 주재하면서 대부도별초로 하여금 소래산 출격전을 명령했다는 확증은 없다. 그리고 한취가 대부도의 전선 9척으로 몽고병을 공격했으나 逆擊받아 전멸당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사료 C에서 대부도별초가 등장해야 한다. 사료 C에서는 어디까지나 아주해도라고 표기하였을 뿐 대부도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확인되지 않으며 아주해도를 매개로 하여 해전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명시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아주해도=대부도’설은 입증해야 할 많은 난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아주해도가 仙甘島, 仙藏島, 大府島였을 것이라는 가설들을 살펴보았다. 이런 가설들은 모두 일정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논거가 부족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한취가 주재했던 아주해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먼저, 아주해도는 고려시대 牙州 관할에 속한 특정 해도를 의미할 수 있다. 이 경우라면 牙州에 거의 붙어 있는 선장도는 아주해도가 될 수 있고, 仙甘島(仙甘彌島)·

54) 윤경진은 ‘牙州海島=大府島’說을 주장했는데, 忠州道巡問使 韓就가 忠州民을 거느리고 大府島에 入保했다고 지적하였다. 氏의 논리대로라면 大府島別抄의 편제에 忠州民 중에서 驍勇者가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大府島(大部島)는 仁州 唐城郡의 해도가 된다. 즉, 선감도·대부도는 아주해도가 아니라 仁州海島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주해도는 아산만에 위치한 특정한 해도(혹은 복수의 해도)를 지칭하는 것일 수 있다.⁵⁵⁾ 그런데 『고려사』 지리지 牙州조에서는 아주 관할의 섬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이는 『新增東國輿地勝覽』 牙山郡조 및 기타 地理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아주해도의 존재를 선뜻 단정하기가 곤란하다.

필자는 충주도순문사 한취가 駐在한 아주해도는 사실상 아산만 일대의 어느 해도를 지칭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취가 아산만에 위치한 어느 섬 한 곳에 줄곧 머물러 있었는지 아니면 2~3개 이상의 해도를 이동하면서 머물러 있었는지가 관건이 된다. 충주도순문사 한취가 아산만 일대의 2~3개 이상의 해도를 점검하면서 이동했다라도 아주해도전투 당시에는 특정한 1개 섬에 주재했음이 분명하다. 아주해도가 아산만 일대의 모든 섬을 포괄하는 의미라면 대부도·선감도 역시 아주해도에 포함될 수는 있다. 하지만 앞서 필자가 분석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들 섬(대부도·선감도)은 한취가 주재했던 아주해도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려시대 당시 아주 연안에 거의 붙어 있었다고 전하는 선장도는 아주해도에 포함되지만 애초부터 한취가 이 섬에 주재하고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한취가 주재했던 아주해도가 선장도·선감도·대부도가 아니라면, 아산만 일대에 펼쳐져 있는 입화도(입파도)·육도·풍도 등이 주목된다.⁵⁶⁾ 입화도·육도·풍도는 『고려사』 지리지에서 仁州 唐城郡에 포함되지 않는 섬들이며 아산만 중심부에 위치한⁵⁷⁾ 주요 도서이다. 흔히

55) “牙州海島=牙山灣 권역의 海島”라면 굳이 아주해도를 牙州 소속의 섬으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 그렇더라도 牙州海島는 仁州 唐城郡에 소속된 섬보다는 牙州에서 멀지 않은 섬이었다고 판단된다.

56) 물론 아산만에는 입화도·육도·풍도 이외에도 난지도·국화도 등이 존재한다. 난지도·국화도는 입화도·육도·풍도와는 다르게 서산·당진에서 지근거리에 위치하므로 아산만 중앙부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아주해도라고 했을 때 牙州를 통해 아산만으로 출입했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을 사용했다고⁵⁸⁾ 본다면, 이러한 섬들 중 어느 하나에 한취가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입화도·육도는 풍도의 동쪽에 위치하는데, 입화도는 입파도로도 불리며 현재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에 속해 있다.⁵⁹⁾ 입화도는 풍도보다 규모가 작지만 아산만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버티고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였다. 한편, 풍도는 청일전쟁의 격전지로 유명한데⁶⁰⁾, 그만큼 전략적 가치가 큰 섬이었다. 풍도는 아산만 입구에서 서쪽으로 입화도 → 육도를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는 비교적 먼 섬이었는데, 현재 안산시 단원구 풍도면에 속해 있다.⁶¹⁾

이들 섬 중에서 특히 입화도는 연안항로의 요충지였다. 입화도는 강화도 → 영종도 → 대부도 → 선감도 → 입화도로 이어지는 연안항로의 주요 기점이자 牙州 연안에서 가까운 섬으로서 주목된다. 아주 연안에서 비교적 가까운 입화도를 통해서 북쪽으로 제부도·선감도·대부도로 나아갈 수 있고, 서쪽으로 육도·풍도로 향할 수 있었으며, 남쪽으로 서산·당진에 도달할 수 있었다. 입화도가 고려시대 仁州 관할이었던 대부도·선감도와는 다르게 仁州 권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牙州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 섬이 한취가 머물러 있었던 아주해도였을 개연성을 높여준다.

만일 한취가 머물렀던 아주해도가 입화도였다면 한취는 그곳에서 대부도 별초군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대부도별초의 소래산 출격전 소식을 접했을 개연성도 있다. 그리고 한취는 입화도에서 천안부민이

57) 『高麗史』地理志 撰者는 입화도·육도·풍도를 仁州 唐城郡 소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실제로 이들 섬은 唐城郡 소속의 大府島(大部島)·仙甘島(仙甘彌島) 아래쪽에 위치하며, 아산만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 지정학적인 요충지였다. 군사 전략적 가치에 있어서나 沿岸航路·漕運路 항해에 있어서나 중요한 도서였다.

58) 윤경진, 앞의 논문, 2013, 51쪽.

59) 『두산백과』 '입파도' 항목 및 화성시청 홈페이지 읍면 현황 참조.

60) 淸日戰爭 때 일본 해군은 풍도에 주둔한 淸나라 해군을 격멸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청일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

6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터넷 개정증보판)의 「풍도」 항목 참조.

입보한 선장도의 입보상황 및 몽고 수군의 동태도 점검했을 법하다. 이러한 추정에 근거하여, 『고려사』·「지리지」 찬자가 아주해도라고 다소 애매하게 기술했던 섬은 실제로는 입화도·육도·풍도 중 어느 섬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입화도가 지리적 입지에서나 전략적 측면에서 비교적 유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한취는 아주해도(특히 입화도)에 머물면서 왜 전선 9척으로 몽고병을 선제공격하려 했을지 그 당시 상황을 추론해볼 필요가 있다. 牙州 연안에 주둔한 몽고군은 車羅大軍의 한 부대로서 해도침공을 위한 부대였으며 북서쪽의 대부도에 주둔한 대부도별초의 견제를 받고 있었다. 특히 대부도 공격을 위하여 전선을 건조하고 있었던 蘇來山의 몽고군 부대가 대부도별초에게 기습을 받아 격퇴당하면서 대부도 공격은 좌절되었다.⁶²⁾ 그래서 아주에 주둔한 몽고군은 우선 牙州에 바짝 붙어 있는 선장도를 공격해서 함락시켜야만 차후 아산만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그들은 선장도를 攻取하지 못하고서는 선장도를 거쳐 입화도·육도·풍도로 나아갈 수 없었으며, 고려 측의 전략 거점인 대부도를 고립시킬 수 없었다. 몽고 수군은 연륙도인 선장도와 아주해도인 입화도·육도·풍도 사이의 연결을 끊고 조운로를 봉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천안부민이 입보한 선장도를 공격하기 위해 기습상륙전을 준비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을 간파한 충주도순문사 한취가 아주해도(특히 입화도)에 주재하면서 전선 9척으로 아주 연해안에 있던 몽고 수군에 대한 기습을 의도했던 것이라 여겨진다. 한취 휘하의 전선 9척이 아산만을 통해 東進해나가자 아주에 주둔한 몽고 수군이 이를 알아차리고 逆擊에 나서 해상에서 접전이 벌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한취가 지휘하는 고려 수군은 아주 연해안에서 逆擊해온 몽고 수군을 격멸시킴으로써 선장도를

62) 大府島別抄에 의해 격퇴당한 蒙古軍이 재차 大府島에 대한 공격을 준비해왔을 가능성도 물론 있다. 그러나 대부도별초의 기습상륙전 이후 사료 상에서 몽고 水軍이 대부도를 침공했다는 기사는 발견되지 않는다.

구원하였던 것이라 판단된다. 결국 사료 C가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한취 휘하 고려 수군(혹은 별초군)의 仙藏島 救援戰”이었다고 추론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한취의 “선장도 구원전”은 두말할 것 없이 해전을 통한 몽고 수군 격멸이었으며, 선장도의 안전이 보장됨으로써 입화도·육도·풍도 또한 몽고군의 해도침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한취의 작전에 의해 아주 연해안에 주둔한 몽고 수군이 격멸됨으로써 1256년 6월 장군 李旼이 水軍 2백 명을 거느리고 육지에 상륙해서 溫水縣(현 아산시 온양면)에서 몽고군 수십 명을 베고 적에게 포로가 되었던 고려 남녀 1백여 명을 탈환할 수 있었다.⁶³⁾ 장군 이천은 입화도를 거쳐 아주 연해안에 도착한 후 溫水縣으로 진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이러한 루트로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충주도순문사 한취가 같은 해 4월에 이미 아주해도전투를 승리로 장식한 데 힘입은 바 크다고 본다.

4. 1255~1256년 海島戰鬪 승첩과 군사적 영향

1255~1256년 몽고군 元帥府의 전략변화에 따른 해도침공과 이에 대한 고려의 대응 및 격퇴는 우리나라 전통시대의 대륙세력 침략사에서 결코 볼 수 없었던 특수한 장면이었다. 1255년 12월 槽島戰鬪 및 1256년 4월 牙州海島戰鬪에서의 승전은 고려의 海島入保策에 의거한 長期戰을 유지시켰고, 1256년 5~6월경 압해도해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어 해도 입보책의 전략적 이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외교전에 있어서도 出陸還都 및 蒙古六事 이행 등에 관해 몽고 황제 憲宗(蒙哥, 몽케)와 담판을 벌여 무인정권 입장에서 강화를 맺을 수

63) 『高麗史』卷24, 高宗 43年 6月 壬午日條, “壬午 將軍李旼 與蒙兵戰于溫水縣 斬數十級 奪所虜男女 百餘人 崔沆 以銀六斤 賞士卒.”

있는 분위기를 조장하였다.

1255년 12월 고려가 槽島戰鬪에서 승리한 것은 武人政權과 江都朝廷에 있어서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몽고 제5-(2)차 침입 당시 해도전투의 緒戰이라 할 수 있는 조도전투 승리로 北界·西海道 戰略海島를 온전히 死守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조도전투에서 패배하여 槽島(필자는 椒島로 추정)를 몽고군이 점령했다면 북계의 전략해도들이 江都의 軍士·軍資·軍糧 지원을 받지 못해 고립되어 각개 격파될 위기에 처할 수 있었다. 조도전투의 승리는 북계 전략해도의 고립 방지 및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조도를 死守함으로써 북계와 서해도의 주요 전략해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몽고군 후방지대에 대한 역습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훗날 북계의 어느 전략해도에 주둔한 별초군 3백 명이 義州에 기습상륙전을 펼쳐 몽고군 장수 東京總管 松山 휘하 1천 병력을 패물시킨 것은⁶⁴⁾ 이러한 북계 전략해도의 유격전술을 잘 입증해준다.⁶⁵⁾

마지막으로 조도전투의 승리는 몽고 수군이 江都를 침공할 수 없게 만들었다. 몽고 수군이 槽島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江都 침공을 포기했다는 것은 몽고 제5-(2)차 침입의 목적(고려 해도 침공)을

64) 1256년(高宗 43) 4월에 北界의 어느 戰略海島에 있던 別抄 3백이 義州에 주둔한 東京總管 松山 휘하의 蒙古兵 1천명을 공격해 패퇴시켰음은 다음의 두 사료에 의해 입증된다. 『高麗史』卷24, 高宗 43年 夏4月 戊寅日條, “戊寅 西北面兵馬使馳報 遣別抄三百 擊蒙兵一千于義州.” 『高麗史』卷24, 高宗 43年 冬10月 甲申日條, “甲申 車羅大管下 東京總管 松山 率妻及僮從五人 來投 崔沆 館待甚厚 問其來由 松山云 非以蒙古危亡 而爾國強盛也 我有三罪 以此來耳 車羅大 入南界 以我鎮義州 不能固守 一也 又使我 勸農畜糧 而禾稼不登 倉庫虛耗 二也 聞高麗兵來 遣七十人 刺探 無一人返者 三也.”

65) 1256년(高宗 43) 4월 義州를 기습공격한 別抄 3백은 어느 戰略海島에 주둔한 병력이었을 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지리적으로 義州와 가까우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했고 『高麗史』의 對蒙戰爭期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艾島·葛島에 주둔했던 別抄軍(혹은 三別抄)이었을 수 있다. 다음으로, 北界兵馬使(원문에는 西北面兵馬使)가 別抄 3백을 파견했다고 기록한 점을 중시한다면, 그리고 고종 43년 당시 北界兵馬使營이 昌麟島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별초 3백은 昌麟島에 주재했던 별초군(혹은 삼별초)이었을 수도 있다.

퇴색시키는 것이었다. 몽고군은 3重城의 구조를 갖추고 다수의 별초군을 보유한 江都를 직접 침공하기가 곤란했으므로 강도 북쪽과 남쪽의 중요한 거점 전략해도를 먼저 공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 북쪽 거점 전략해도가 槽島(椒島)였던 셈인데, 조도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차라대는 江都直攻을 포기했던 것이라 하겠다.

1256년 4월 忠州道巡問使 韓就와 그 휘하 戰船 9척에 의한 牙州海島 戰鬪 승첩은 압해도해전과 더불어 여·몽 간의 해도전투의 분수령이 되었고, 海戰史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한취가 아주해도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아주 연해안의 仙藏島를 방어하여 그곳에 입보한 天安府民을 보호할 수 있었다. 둘째, 아주해도전투는 적극적이면서 공세적인 해전이었으며 몽고 수군을 격멸했다는 측면에서 討滅戰이었다. 이는 1256년 5~6월경 최대 규모로 치러졌으나 수세적 방어전이었던 押海島海戰과는 전혀 다른 전투 양상이었다. 셋째, 아주해도전투의 승리는 충청권 아산만 일대의 해도입보방어망 체제를 고수케 해주었고 漕運路를 안전하게 지켜냈다.⁶⁶⁾ 아주해도전투에서 한취가 선장도를 死守했던 점은 입화도(입파도)·육도·풍도에 대한 몽고 수군의 침공 야욕을 분쇄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아울러 충청권의 漕運路를 몽고 수군에게 위협받지 않게 되어 강도조정의 숨통을 다소 트여주었다. 넷째, 아주해도전투의 승첩은 강도조정과 別抄軍·海島入保民의 사기를 진작시킨 반면 향후 압해도해전을 앞둔 몽고군 수뇌부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시켰다.⁶⁷⁾ 몽고군 원수 차라대는 1256년 4월에 아산만

66) 1256년 5~6월경 押海島海戰이 치러지기 이전까지는 牙州海島戰鬪 승리로 인해 漕運路를 안전하게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67) 실제로 押海島海戰을 앞둔 蒙古軍 元帥府의 정황을 살펴보면, 車羅大의 많은 副官들이 押海島를 치지 말고 西京으로 물러나 屯을 치자고 한 대목이 발견된다. 이는 蒙古軍 元帥府 내부에서 1255년 槽島戰鬪, 1256년 牙州海島戰鬪에서 번번이 실패를 경험한 것에 따른 부담감과 아울러 押海島海戰의 실패가 가져올 과장효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해석되는 바, 몽고군 내부에서 심한 알력과 내부 갈등이 있었음을 통찰할 수 있다. 『高麗史節要』卷17, 高宗 43年 6月條, “郎將 尹椿自蒙古軍來 椿叛入蒙古有年 至是逃還 言曰 諸將勸車羅大退屯西京 辭以無詔曰 吾

일대의 주요 전략해도들을 점령해 놓고 강도조정을 최대한 압박, 위협하면서 압해도해전을 치를 심산이었다. 이러한 차라대의 전략을 수포로 만든 것이 바로 아주해도전투였던 것이니 그 전략적 가치가 실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255년 조도전투, 1256년 아주해도전투의 승첩은 이후 전개된 압해도해전의 승리와 결부되면서 몽고에 파견된 고려 사신 金守剛과 몽고 황제 憲宗 사이에서 강화협상을 촉진시켰다. 김수강과 몽고 현종 사이의 담화 내용과 임시적 講和締結 장면을 아래의 사료를 통해 살펴보자.

D. 九月 金守剛 還自蒙古 守剛從帝 入和林城 乞罷兵 帝以不出陸爲辭 守剛奏曰 譬如獵人 逐獸入於窟穴 持弓矢當其前 困獸何從而出 又冰雪慘冽 土脉閉塞則 草木豈能生哉 帝嘉之曰 汝誠使乎 當結兩國之好 遂遣徐趾來 命班師(『高麗史 節要』 卷17, 高宗 43年 9月條)

위의 사료 D는 고려 사신 김수강이 임시적 對蒙講和를 체결하고 1256년(고종 43) 9월에 고려로 귀국했음을 알려준다. 사신 김수강은 몽고 제5-(1)차 침입이 종료되자 1255년(고종 42) 6월 郎將 庾資弼과 함께 몽고에 파견되어 方物을 進獻하고(68) 대몽강화 교섭을 펼친 인물이다. 그가 1년 3개월 만에 고려에 귀국했던 셈인데, 그동안 몽고 측에 억류되어 고초를 겪었다고 판단된다.(69) 몽고에 1년 넘게 억류당해 있으면서도 김수강은 위의 사료 D에서, “굴속에 갇힌 짐승이 굴 앞의 사냥꾼이 두려워 나오지 못한다”고 비유하며 강도조정이 안심하고 出陸 還都할 수 없는 정황을 몽고 현종에게 납득시켰다. 아울러 김수강은

寧死於此 豈可退哉(下略).”

68) 『高麗史』 卷24, 高宗 42年 6月 甲戌日條, “甲戌 遣 侍御史金守剛 郎將庾資弼 如蒙古 進方物.”

69) 金守剛이 蒙古에 1년 넘게 억류되어 있었던 것은 江都朝廷이 出陸還都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몽고침입군에게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몽고 제5-(2)차 침입이 海島侵攻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몽고 憲宗은 전체적인 戰況을 지켜보면서 對高麗講和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心算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몽고군이 먼저 철수하면 강도조정이 이후 出陸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몽고 헌종은 1256년 4~6월경 김수강의 講和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⁷⁰⁾ 蒙古使 徐趾를 파견하여 몽고군의 철수를⁷¹⁾ 명령하였다. 강도조정의 출륙·항복을 강요했던 對高麗強硬論者 憲宗이 임시적으로 고려와 강화를 맺고 군대를 철수시킨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김수강의 끈질긴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어 극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느낌이 있다. 1256년 당시 몽고 헌종은 그간의 남송정벌이 지지부진하자 대대적인 南末 親征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⁷²⁾ 고려 측 전선에 신경을 집중시키기가 곤란하였다. 김수강이 蒙古使 徐趾와 함께 고려로 귀국한 때는 1256년 9월인데, 그 시점 이전에 차라대가 지휘하는 몽고군의 해도침공이 모두 좌절되었다. 몽고군은 1255년 조도전투에서부터 1256년 4월 아주해도전투를 거쳐 같은 해 5~6월경 치러진 압해도전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해전에서 실패를 경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고려 측 전선의 상황이 남송 친정을 준비하던 몽고 헌종에게 전달되었고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임은 자명하다.

몽고 제5-(2)차 침입은 주지하다시피 몽고군의 고려 해도침공을 주목표로 진행된 전쟁이었다. 1255~1256년 몽고군이 서해안 전략해도들을 침공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은 그들의 전략 목표를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몽고군의 해도침공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자 몽고 헌종은 고려 사신 김수강의 講和 제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비록 사료 D에서는 그러한 정황이 직접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70) 高麗使 金守剛이 귀국한 때가 1256년 9월이므로 蒙古를 떠난 시점은 늦게 잡아도 같은 해 6월경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몽고 憲宗이 김수강의 講和 요청을 수락한 시점은 1256년 4~6월경이었을 것이다.

71) 蒙古 憲宗이 1256년 9월 蒙古軍의 철수를 명령했다고 하더라도 車羅大軍 전체가 몽고 본토로 완전히 철수한 것이 아니다. 『高麗史』에서는 몽고군이 北界 청천강 이북에 주둔하면서 다시 고려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던 장면이 포착된다.

72) 『元史』卷3, 憲宗本紀 6년 6월조, “六月 太白晝見 幸鷲亦兒阿答 諸王亦孫哥 駙馬也速兒等 請伐宋 帝亦以宋人違命囚使 會議伐之.”

당시 麗蒙戰爭 및 蒙古-南宋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둘 때, 몽고 헌종과 高麗使 김수강 사이에서의 임시적 강화체결은 몽고군의 해도침공 실패 시기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결국 조도전투 및 아주해도전투의 승리는 압해도해전 승리와 맞물리면서, 직접적으로는 차라대군의 철수를 이끌어냈고 간접적으로는 임시적 대몽강화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

5. 맺음말

이 글에서 필자는 對蒙戰爭期 몽고 제5-(2)차 침입(1255~1256)에 있어서 槽島戰鬪, 牙州海島戰鬪의 대상지를 비정하고 각각의 勝捷과 그 결과를 다루면서 해도전투의 승첩이 강도조정의 해도입보책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麗·蒙 사이의 臨時的 對蒙講和에 간접적 영향을 주었다는 입장에서 기존 시각과는 다른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러면 본문에서 필자가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1255년 12월에 몽고군의 기습 공격으로 발발했던 槽島戰鬪는 史料가 영성하여 그간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해도전투였다. 槽島는 전라도 서해안의 어느 섬(특히 智島)가 아니라 西海道와 北界의 경계 부근에 위치한 北線航路의 중점이자 西海道 최대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椒島로 추정해 보았다. 車羅大軍의 別動隊(선발대)는 1255년 10월 忠州 방면으로 진출했지만 또 다른 별동대가 1255년 10~11월경 전라남도 서해안 방면으로 남하를 완료해서 戰船을 건조하고 水軍을 정비했다는 정황 증거는 포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도전투는 車羅大軍 本陣의 일부 부대가 서해도 방면에서 도발했던 것으로 파악되며, 대담하게도 전선을 건조한 후 해도침공을 시도했던 것이다. 조도전투에서 고려 측이 승리함으로써 北界의 戰略海島들이 고립되어 各個擊破되는 위기상황을 방지

했으며, 몽고군이 江都를 直攻하는 계획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었다.

1256년 4월에 치러진 牙州海島戰鬪는 아주해도에 駐在하고 있던 忠州道巡問使 韓就가 아주 연해안에서 海島侵攻을 준비하고 있던 몽고 수군을 戰船 9척으로 격멸한 전투였음을 밝혀보았다. 그간 학계에서 아주해도를 天安府民의 입보처였던 仙藏島(혹은 仙甘島)이라거나 大府島別소가 주둔하였던 大府島로 파악해왔다. 그러나 필자는 아주해도가 고려시대 당시 仁州 唐城郡에 속한 대부도·선감도가 아니라 아산만 일대의 입화도(입파도)·육도·풍도 중의 어느 한 섬이었을 것이며 특히 입화도였을 것으로 추론해보았다. 충주도순문사 한취는 아주해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주 연해안에 인접한 仙藏島를 攻陷하려 했던 몽고 수군을 공격하여 한때 反攻을 받았지만 모두 격멸시켰다. 아주해도전투의 승전으로 선장도를 보호함으로써 고려는 아산만 일대의 戰略海島들에 대한 몽고 수군의 공격 의도를 좌절시켰고, 해상 漕運路를 안전히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컸다. 아주해도전투는 아산만 일대의 전략해도를 보존시킴으로써 향후 押海島海戰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1255~1256년 해도전투에서 고려 측이 승리하자 그간 정체 상태로 있었던 여·몽 사이의 講和會談이 결실을 맺었다. 1255년 6월 몽고에 파견되어 1년이 넘도록 억류당하면서 줄곧 몽고군 철수를 주장하고 江都朝廷이 出陸還都를 즉시 결행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파해왔던 金守剛이 극적으로 몽고 憲宗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高麗使 김수강이 ‘先 몽고군 철수, 後 君臣出陸’을 조건으로 臨時的 對蒙講和를 이끌어낸 시점은 1256년 4~6월경이었다고 추정해보았다. 이 시점은 공교롭게도 몽고군이 조도전투, 아주해도전투에서 패배하고 압해도해전이 실패한 때였으며 이러한 해도침공의 좌절은 대대적인 南宋 親征을 준비하고 있던 몽고 憲宗에게 對高麗講和라는 외교적 宥和策을 선택케 하였다. 몽고 제5-(2)차 침공 당시 해도전투의 승리는 김수강의 외교적 노력과

결부되면서 임시적 대몽강화 체결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강도 조정으로서는 계속되는 몽고 침입 속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和戰兩面策을 지속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2014. 10. 1, 심사수정일: 2014. 11. 20, 게재확정일: 2014. 11. 21]

주제어 : 전략해도, 해도입보책, 해도침공, 槽島, 牙州海島, 입화도, 압해도,
韓就, 車羅大

<ABSTRACT>

A Study on the Victory of Jodo(槽島)·Aju Island(牙州海島) Battles from 1255 to 1256

Kang, Jae-gwang

Mongolian Forces invaded the important Strategic Islands(戰略海島) of Goryeo dynasty between the year of 1255 and 1256. On December of 1255, Mongol Army ambushed Jodo(槽島), but they were repelled by Byulchogun(別抄軍) which was formed by the peoples summoned in their own provinces and Ibbomin(入保民). Jodo had been considered that it was not Jido(智島) in Jeollado(全羅道) but Chodo(椒島) in Seohaedo(西海島). The victory of Jodo battle prevented its isolation from Strategic Islands located in Bukgye(北界). Also, desperate fighting of Jodo Ibbomin forced Mongol Army to abandon its invasion on Kangdo(江都). On April of 1256, in the Aju island(牙州海島), a battle broke out. Chungjudosoonmunsa(忠州道巡問使) Hanchui(韓就) destroyed Mongol soldiers who were stationed in Aju(牙州). The Island that Hanchui stayed at first, took over the land of Ibhwado(Ippado) which was located in the entry way of Asan bay(牙山灣). At that time, the Island that Hanchui occupied, was estimated as Seonjangdo(仙藏島) which was nearby Aju coast. The results of Aju island battle, Goryeo dynasty secured maritime transportation systems and a sea lane of Chungcheong province.

Such successes of naval battles in 1255~1256 had an effect on diplomatic war between Mongol Emperor Heonjong(憲宗) and Goryeo envoy, Kim Sugang(金守剛). After naval battles with Mongol Army, Mongol Emperor Heonjong accepted the Goryeo's suggestion of peace negotiations. The hardcore content of peace negotiations between Mongol Empire and Goryeo dynasty, was integrated into withdrawal of Mongol Army and returning to the capital, Gaegyung(開京) of Kangdo Court(江都韓朝廷). Through temporary peace negotiations with Mongol Empire in 1256, Kangdo Court could maintain resistant tactics against Mongol.

Key Words : Strategy Islands(戰略海島), Jodo(槽島), Aju island(牙州海島),
Hanchui(韓就), Byulchogun(別抄軍), Ibbomin(入保民), Heonjong
(憲宗), Kim Sugang(金守剛)